

한국-일본 컨테이너 열차 · 배 일관수송

열차와 선박을 이용해 한국과 일본의 화물을 신속하게 나르는 새로운 시스템이 선보인다.

건설교통부에 따르면, 정부는 서울-오사카-도쿄 철도, 해운을 연계해 일관수송이 가능한 철도 중심의 컨테이너 직송서비스를 3월2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.

컨테이너 직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운송비용이 톤당 30만원으로 항공운송의 500만원보다 3분의 1 이상 저렴하며, 운송시간 또한 환적시간을 포함해 서울에서 도쿄까지 44시간으로 항공편과 거의 비슷하다.

건교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2006년 철도물류협력회의를 통해 직송 서비스 구축을 논의해왔으며 2007년 2월에는 시험운송까지 마쳤다.

<화학저널 2007/03/23>